

# 슬픈 육체를 가진 짐승이 내는 별들의 토론 소리

— 최인훈의 『화두』와 소련이라는 질문

장 문 석\*

## [초 록]

식민지와 냉전은 최인훈 문학 전체를 통괄하는 화두였다. 탈냉전기에 발표된 소설 『화두』(1994)는 한반도의 학문/지식이 소련과 교섭하기를 멈춘 상황에 발표된 후일담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뒤늦게 소련 기행에 나선 최인훈이 선배 문학자 조명희와 이태준의 소련 체험을 검토하면서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라는 열망을 뒷받침한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마주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두 가지 방식의 독해를 시도하였다.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최인훈, 『화두』, 조명희, 「낙동강」, 이태준, 「해방전후」, 『소련기행』, ‘명문에 걸맞은 현실’, ‘현실에 걸맞은 명문’, 인류, 주변부, 사회주의, 탈식민화, 사회적 연대, 소련  
Choi In-hoon, “Topic”, Cho Myung-hee, “Nakdong River”, Yi Tae-joon,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rip to Soviet Union”, “Reality Aligned with Great Writing”, “Great Writing Aligned with Reality”, Humankind, Periphery, Socialism, Decolonization, Social Solidarity, Soviet Union

첫째, 이 글은 문학사의 맥락을 존중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소련 체제의 붕괴와 조명희의 비극적 최후를 접하면서 최인훈은 “「낙동강」 혹은 『자본론』이라는 ‘명문에 걸맞은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최인훈의 소련행은 ‘명문에 걸맞은 현실’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행이었다. 그 탐색의 절정에서 그는 조명희와 관련된 한 연설문을 만난다. 그 연설문은 현실이라는 조건에 유의하면서도 역사의 발전과 민중의 삶을 신뢰하며 사회주의 이상향을 지향한 것이었다. ‘명문에 걸맞은 현실’을 찾아서 소련기행에 나섰던 최인훈은 ‘현실에 걸맞은 명문’을 발견하였다.

둘째, 이 글은 문학사적인 맥락을 거스르는 독해를 시도하였다. 최인훈은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다시 읽으면서, 인간의 꿈과 행동, 역사와 현실, 민중의 삶이 갖는 의미를 다시 검토하였다. 최인훈은 비서구 한국문학자인 조명희와 이태준의 문장을 다시 읽는 방식으로 ‘레닌의 문장’을 탈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글은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통해서 최인훈의 『화두』의 공백을 채우면서, 최인훈의 소련기행의 침묵을 보충하였다. 최인훈은 소련에서 러시아 청년이 발화하는 낯선 한국어를 만나는데, 그것은 20세기 소련에서 살았던 조선인의 삶과 문화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최인훈은 『화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혁명의 시간으로 도약한다. 그 시간은 인류라는 보편성의 시간이면서, 식민지 민중의 주변부의 시간이었다. 최인훈은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 인류의 이상으로서 사회주의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였다.

냉전의 종식이 이야기될 무렵, 최인훈은 20세기의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소련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를 뒷받침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구출하여 인류의 이상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고자 하였다. 이 글은 최인훈이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한 사회주의라는 이념, 혹은 소련이라는 질문을 두고 “슬픈 육체를 가진 짐승이 내는 별들의 토론소리”라고 명명하였다.

## 1. 소련 해체와 『화두』라는 후일담

1991년 12월 25일 오후 크렘린 궁에서 붉은 기 내려지다. (2:343)<sup>1)</sup>  
 소련이 망한 이듬해인 1992년 첫가을의 어느 맑은 날 김포공항에 한 무리의 시인 작가들이 모여서 지금은 구소련이라고 불리는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담소하고 있었다. 그속에 나도 있었다. (2:344)

1971년 7월 16일.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사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거쳐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한다.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의 변동이 감각되는 데탕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1936년생 월남 문학자 최인훈. 그는 키신저의 중공 방문 기사를 접하고는 그것을 냉전질서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흥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스러움, 발을 헛짚은 느낌, 그것은 아주 고약한 악몽에서 깨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기록하였다. 최인훈이 데탕트라는 사건을 기대와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짜증과 곤혹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풍문의 나라’ 주변부 한국의 민중으로 살았던 그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동아시아 데탕트의 나날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소설로 기록하였다.<sup>2)</sup>

- 
- 1) 최인훈(1994), 『화두』 2, 민음사, p. 343. 이 글에서 최인훈의 『화두』를 인용할 때는 본문에 (권수:면수)의 형식으로 인용한다. 『화두』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최인훈 자신의 자전적 서사로 읽을 수도 있다.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인훈’과 ‘『화두』의 서술자’로 주체를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혼용한다.
  - 2) 최인훈(1971), 「갈대의 사계」 2, 『월간중앙』, 1971.9, p. 402. 1970년 동아시아의 데탕트와 최인훈의 문학적 실천에 관해서는 장문석(2017),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p. 268-309 참조. 최인훈의 실제 출생연

그리고 다시 20년.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된 이듬해 가을 최인훈은 러시아 작가협회의 초청으로 몇몇 문학과자들과 함께 소련기행에 올랐다. 그 기행에 올라서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23년 전 글인데 지금 읽어보면 얼마나 탄 세상이야기 같은가. 실지로 탄 세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2:352)라고 소회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4년 3월 최인훈은 소설가로서 오랜 침묵을 깨고, 식민주의와 냉전이 겹친 그 자신의 생애사를 창작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2권 분량의 장편소설 『화두』를 간행한다. 『화두』의 제1권은 1970년대 중반 미국행울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제2권은 1990년대 초반 소련기행울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 『화두』 제2권을 중심으로 최인훈의 소련기행울 통해 한국근대문학과 소련이라는 질문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객: 다시 말해 『화두』(제2부)란 무엇인가. 한갓 후일담이 아니겠는가. (...) 조금 전에 선생께서 깨알같이 써놓은 『화두』 독후감을 잠시 엿보았는데, 거기엔 『화두』 제2부에 대해 썩 비판적이더군요. 흡사 부록처럼 취급되어 있던데요. (...) 제2부의 구소련 여행기가 너무 요란하다는 선생의 지적도 엿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토록 「낙동강」의 작가에게 매료된 사람이 기껏해야 모스크바나 페테르스부르크 주변을 맴돌고, 제3자를 통해 조포석의 자료 수집에 멈추고 말수 있을까. 조포석을 찾아 시베리아라도 헤매야 했던 것이 아닐까. 기껏해야 관광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헤겔 이후라는 뜻입니까?<sup>3)</sup>

『화두』 간행 직후 ‘황국신민세대’ 문학자로서 최인훈과 같은 1936

도는 1934년이며, 1936년은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된 출생연도이다.

3) 김윤식(1996b), 「최인훈론 — 유죄판결과 결백증명의 내력」, 『작가와와 대화』, 문학동네, p. 31.

년생 비평가 김윤식은 이 소설에 관한 통찰력 있는 비평을 제출하였다. 김윤식은 『화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다. ① 『화두』가 소련 해체의 ‘후일담’이라는 점. ② 최인훈 혹은 『화두』의 서술자가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에게 매혹되었다는 점, 그리고 ③ 최인훈의 소련기행이 『화두』 제2권의 중심인데 그 여정이 무척 한정적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김윤식은 『화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 글은 20세기 세계사라는 시각에서 『화두』를 다시 읽고자 한다. 즉, 소련 해체 이후 소련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후일담’으로서 『화두』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인훈의 『화두』와 소련이라는 질문을 고민할 때,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인훈의 소련기행이 그에 앞서 소련(기)행을 선택했던 선배 문학자 조명희와 이태준의 문학과 실천의 의미를 되짚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이 글 역시 탈냉전기 최인훈의 『화두』를 식민지 시기 조명희

- 4) 선행연구는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최인훈의 『화두』와 선배 문학자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화두』에서 조명희의 죽음은 사회주의 이념의 몰락과 같은 자리에 놓여서 우울증적 애도의 대상으로 고착화되며, 이태준과의 동일시는 주인 되기의 계기로 기능하지만 그것은 정치성을 탈각한 환상 안에서만 가능하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와 반복으로 귀결한다는 판단이 대표적이다. 구재진(2015), 「최인훈의 『화두』에 나타난 애도와 기억」,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pp. 28-29. ② 문학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경유하여서 최인훈의 『화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최인훈의 『화두』가 “자신이 북에서 겪은 자아비판회와 조명희의 처형, 그리고 이태준의 처벌 등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발하고 이태준과 조명희가 선택한 ‘공동체적 이성’의 발견”에 도달하였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임미진(2018), 『『화두』에 나타난 식민지 문학인의 연대와 역사적식 — 조명희와 이태준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p. 495. ③ 문학사의 방향을 거슬러 최인훈의 『화두』를 통해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검토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최근의 선행연구는 “불꽃같은 혁명을 예견하는 명문대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문장이란 작가를 둘러싼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바로 그 현실을 주조하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수행적 기능을 한다”라는 『화두』의 문장론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말)이 참(현실) 되는’ 명문의

의 「낙동강」과 냉전기 이태준의 「해방전후」 및 『소련기행』과 겹쳐서 읽고자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인훈 스스로가 자신이 후배 세대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했다는 점이다.

한 개인에게는 자기가 사는 시대라는 환경은 절대적이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의 함정은 우리에게는 이미 파악된 지난날의 환경 속에 자기를 놓는 일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옛사람들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야바위다. (2:60)

그는 후배 세대인 자신이 선배 세대의 선택을 쉽게 재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경계하였고, 선배 세대의 고민을 읽고 그 길을 뒤따라 걸었다. 이 글은 최인훈의 『화두』를 조명희의 「낙동강」, 그리고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소련기행』과 겹쳐 읽고자 한다. 이 글은 겹쳐 읽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2장과 3장에서는 문학사적 맥락을 존중하여 세 명의 작가를 겹쳐 읽고자 한다. 『화두』 2권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문에 걸맞은 현실’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최인훈의 질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2장), 그가 소련기행을 통해서 ‘명문에 걸맞은 현실’을 탐색하고 ‘현실에 걸맞은 명문’과 조우하는 과정을 재구성한다(3장). 4장과 5장에서는 문학사적 맥락을 거슬러서 세 명의 작가를 겹쳐 읽고자 한다. 『화두』를 중심으로 최인훈의 조명희 읽기와 이태준 읽기를 재구성하며(4장), 나아가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통해서 『화두』의 의미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사회주의라는 이념형을 복원하고자 한다(5장). 이를 통해 최인훈의 『화두』를 통해 한국문학과 소련이라는 질문에 접근하고자 한다.

---

세계”를 그린 「낙동강」과 “현실이 언어를 집어삼키는 황량한 세계”를 그린 『소련기행』의 대립이 『화두』의 서사에 내재한다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손유경(2017),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p. 340, pp. 344-345.

## 2. 소련이라는 난제에 균형잡기 — 모순의 유보와 현실의 무게

『화두』의 출판 직후, 김윤식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냉전 체제의 종식을 목도하면서 제출한 『역사의 종언』(1992)이라는 논제를 염두에 두고, “헤겔 이후 또는 역사 이후”에도 “인류사와 운명을 나란히 하는 예술장르”로서 소설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sup>5)</sup> 그의 질문은 『화두』가 소련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직후에 예민한 반응으로 쓰인 소설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먼저 『화두』 2권의 서사를 정리하겠다.

	시간적 배경	장	면수	정치적 서사	‘나’의 서사	비평적 서사
①	1989년 초여름	1장	7-89	남월복작가 해금 이후	서울예대 교원 생활, 지도원 선생과 작문 선생	이용악, 이태준, 조명희
		2장	90-94		문자 해독 이전 다섯 개의 기억	
		3장	95-117		수연산방 방문	이태준
		4장	118-141		귀갓길	

5) 김윤식(1996b), p. 31; 김윤식(1996a), 「역사의 종언과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3(2), 문학동네, pp. 2-4. 역사를 자유의 전개로 이해하고 인간의 이성이 역사의 진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헤겔의 역사의식에 근거하여, 루카치는 근대소설을 시민사회의 서사시로 규정하였다. 비평가 김윤식과 헤겔-루카치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서영채(2019), 「김윤식과 글쓰기의 윤리 — ‘실패한 헤겔주의자’의 몸」,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황호덕(2015), 「김윤식 비평과 문학사론, 총체성과 가치중립성 사이 — 신비평에서 루카치로의 행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참조.

	시간적 배경	장	면수	정치적 서사	‘나’의 서사	비평적 서사
②	1989년 가을	5장	142-164	베를린 장벽 붕괴	빌리 브란트의 대담, 조선과 독일·소련	
		6장	165-243		군 생활	
		7장	244-245		베를린 장벽 붕괴	
③	1990년 5월~ 1991년 12월 16일	8장	247-275	소련 붕괴	조명희의 비극적인 죽음 확인, 명문과 현실의 낙차, <카레이즈의 딸>	조명희
	1989년 12월~ 1991년 12월 25일	9장	276-343		차우셰스쿠의 총살, 고르바초프의 연설, 소련의 붕괴	이태준, 박태원
④	1992년 가을	10장	344-537	소련 붕괴 이후	소련기행(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 방문), 연설문 발견	조명희
		11장	538-543		귀국 후 『화두』 집필 시작	

『화두』 2권의 서사는 1989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시기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를 정점으로 하는 냉전 체제의 종식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보다 세분화하면 네 시기로 분절할 수 있는데, ① 1989년 초여름(월북 작가의 해금 이후), ② 1989년 가을(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③ 1989년 겨울에서 1991년 겨울(소련의 붕괴 과정), ④ 1992년 가을(소련 붕괴 이후)이다. ①에서 ④로 이어지는 시간의 전개에 따라서 『화두』는 냉전 체제의 종식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서사, 최인훈의 사유와 이동을 중심으로 한 ‘나’의 서사, 그리고 최인훈의 선배 문학자에 대한 비평적 서사라는 세 층의 서사로 구성된다.

논의의 전제로서 『화두』에서 ‘나’의 서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두』에서 ‘나’의 서사는 북한의 청소년 시절 최인훈의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라는 근원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그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경험한 지도원 선생이 진행한 자아비판회였다. 최인훈은 이 경험을 “나의 <자아>는 부정당했던” 것으로 서술한다(2:77).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시간에 「낙동강」의 독서감상문을 발표한 경험이다. 그 시간에 작문 선생은 그의 감상문을 “「낙동강」에 대한 감상이 또 하나 이야기가 된 것”(2:83)으로 고평하였고, 그것은 최인훈의 미래에 관한 “치명적 예언”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sup>6)</sup>

이 해의 첫 눈이 푸둑푸둑 날리는 어느 날 늦은 아침 구포역(龜浦驛)에서 차가 떠나서 북으로 움직여 나갈 때이다. 기차가 들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객차 안 동창으로 하염없이 바깥을 내어다 보고 앉은 여성이 하나 있었다. 그는 로사이다. 그는 돌아간 애인의 밭던 길을 자기도 한 번 밟아보려는 뜻인가 보다.<sup>7)</sup>

「낙동강」(1927)에서 백정 출신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앓’의 주체가 된 여성 인물 로사는 박성운의 걸음을 밟아서 북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sup>8)</sup> 최인훈을 매혹하였던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 역시 「낙동강」을 발표한 이듬해 자신 작품의 이념과 예언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최인훈의 선배 문학자 이태준 역시 월북하여 조소 문화협회 제1차 방소(訪蘇)사절단의 일원으로 1946년 8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소련을 방문하였다.<sup>9)</sup>

6) 『화두』는 “역사와 운명에 대한 ‘치명적 예언’을 수행하는 명문을 무한히 신뢰하고 아끼는 예술가의 정신을 담은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손유경(2017), p. 323.

7) 조명희(1946), 「낙동강」, 『낙동강』, 건설출판사, p. 30. 이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현행 맞춤법에 따라 다듬었다.

8) 조명희의 「낙동강」에 관해서는 천정환(2008),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 초기 형평운동과 「낙동강」에 나타난 근대 주체」,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참조.

9) 이태준의 『소련기행』에 관해서는 임유경(2016),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월북 작가의 해금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조명희와 이태준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된 1988년 최인훈은 “「낙동강」의 주인공이 살아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이 됐을 것인가.”(2:84)라는 질문을 거듭 던진다.<sup>10)</sup> 질문의 반복은 그만큼 이 질문이 최인훈에게 곤혹스럽고도 절실했음을 방증한다. 그가 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를 매혹시킨 「낙동강」의 박성운이 죽지 않고 귀환했을 경우, 참여했을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폭력과 역사적 귀결을 묵도한 까닭이었다. 이때 그가 떠올리는 것은 1930년대 소련의 모스크바 재판과 1950년대 북한의 월북 문학자의 숙청이었다. 이들 숙청은 “없는 적성(敵性) 자아가 있다고 추적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숨겼다고 가정하는”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최인훈이 ‘자아’를 부정당했던 자아비판회와 그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었다(2:85-86). 그 자신을 매혹한 인물과, 그 인물이 지향하고 선택했을 체제 사이에서 최인훈은 분열을 경험한다.

---

—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조영추(2019), 「정치적 유토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 참조.

- 10) “박성운이 살아서 돌아와서 성공한 혁명정권의 참가자가 되었다면 지도원 선생 같은 교사가 되었을까?” (2:84) “어쨌든 그 <박성운>, 그 조명희가 그 밑에서 죽어도 좋기로 한 깃발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박성운>도, 조명희도, 작문 선생도 아닌, 지도원 선생네 쪽이다.”(2:87) 최인훈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는 지도원 선생에 대한 판단 일부를 유보하였다. “나는 지도원 선생을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의 처리가 미숙하고, 북한 사회에서의 토론문화의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늘만한 일을 쇠몽둥이로 다스리는 식의 절제 없는 규탄의 수사학이 어린 정신에게 공포를 경험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컨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 봉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 자신이 평생 남보다 더 고된 사회적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식의 인생을 보냈다면, 그는 당당히 남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밤의 재판에서도 그는 전적으로 부당한 검찰관이었고 나는 천사같이 무고한 피고였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2:265)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최인훈이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에 신중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20세기의 생각 있는 사람들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그 정권이 존재한 이후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최인훈은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소간 그만한 까닭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2:87) 언급하면서, 현실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현실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는 『화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해방, 전쟁, 데탕트, 탈냉전 등 그 자신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세계사적 사건을 ‘풍문’의 형식으로 경험한 후식민지 한국 ‘황국신민시대’의 세대적 특징이었지만, 나아가 최인훈의 경험과 고민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였다.<sup>11)</sup> 『화두』에서 최인훈은 작게는 1950년대 중반 전쟁 직후 헌병과 기차 무임승차를 공모하는 소극을 제시하면서, 크게는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을 쓰면서 “현실”은 항상 자신의 “예상”과 “상상”을 훌쩍 벗어난 것임을 서술하였다(2:210, 245). 그가 사회주의의 모순을 바라보는 입장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최인훈은 소련의 모순을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 소련으로 망명한 식민지 지식인 조명희의 위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명희가 소련을 택한 것도 당시로서는 옳은 일이었다. 소련은 식민지로 분할된 당시의 세계에서 해방세력이었다. 그런데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그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조명희가 망명할 무렵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민 자신에게는 억압의 세력이었다. 어느 쪽이 참다운 소련의 모습인가? 두 모습 모두 참다운 소련의 모습이었다. 소련은 피압박 민족에게는 해방의 세력으로서, 그 자신의

11) 역사의 중심에서 소외된 ‘풍문의 나라’ 한국의 주체가 경험하는 ‘역사 주체성’의 위기에 관해서는 장문석(2017), pp. 270-273 참조.

인민에게는 억압의 구조로 존재하였다. 노예에 의해 구성된 노예해방의 요새였다. 소련의 두 얼굴의 어느 하나가 가상(假像)인 존재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모두 참모습인 모순 — 현실의 모순이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인 언어의, 따라서 논리의 모순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모순 — 그것이 소련이었다. (2:258)

소련은 제국-식민지로 나누어졌던 당시 세계에서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이념, 곧 인간 해방을 지향한 국가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식민화 내부에는 이미 개발 정책을 비롯한 비식민화(decolonization)의 방향이 내포하고 있었으며, 산업의 발달과 교육의 보급은 민족의식의 자각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은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인민을 동원한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각성된 민족의식은 민족운동의 분출로 이어졌다. 제국주의 열강 역시 비식민화의 흐름에 눈감을 수 없었으며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레닌은 민족 자결과 무배상·무병합 원칙에 입각한 즉시 강화를 주장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후 월슨의 민족 자결원칙에 이어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와 1920년 국제연맹으로 이어졌다.<sup>12)</sup> 하지만 1930년 전후 소련은 이미 그 내부의 인민을 억압하는 국가이기도 하였다. 특히나 “1938년이라는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도 가능했다.”(2: 261) 최인훈은 해방과 억압, 두 모습 모두가 소련의 참모습이라고 서술하면서, 양자의 ‘모순’ 그 자체로서 소련으로 승인할 것으로 제안한다. 다만 그는 “식민지 대중의 눈에 비친 소비에트 러시아”는 “억압상태로부터의 해방”의 강한 조력자로 비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판단하였고(2:157), 따라서 육체는 식민지의 ‘노예’였지

12) 홍종욱(2019),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3 — 권력과 정치』, 휴머니스트, pp. 300-301. ‘Decolonization’의 번역어로서 ‘비식민화’와 ‘탈식민화’의 역사적 맥락에 관해서는 같은 글 pp. 297-300 참조.

만 정신은 높았던 박성운과 조명희는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련행을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스스로 소련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험하는 규율과 억압, 그리고 부자유는 그들에게 “고난과 기율”, 그리고 “의무”를 의미하게 된다.<sup>13)</sup>

나아가 최인훈은 1930년대 모스크바 대숙청 당시 ‘자기비판’과 그로 인한 ‘이탈자’의 논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는 모스크바 재판에 고발된 피고들이 파시즘의 발흥이라는 세계사적 상황과 러시아의 후진성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밝히는 일은, 더 큰 대의(大義), 역사 자신의 큰 줄기의 이익에 대해 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진보”를 지향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도착된 논리”를 승인했다고 판단하였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회주의를 비판하였던 조지 오웰이나 아서 케스틀러 등 “이탈자”는 “한때 그 밑에서 죽어도 좋으리라던 그 깃발이 여전히 나부끼고 있었고, 그들 자신보다 지성과 의지가 모자란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벽 안에서 그 깃발 아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썼다고 판단하였다. 모스크바 숙청의 피고와 원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탈자’를 바라보는 최인훈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2:252-253)

13) 최인훈은 박성운과 조명희의 태도를 유년시절 그가 원산에서 읽었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의 주인공이 가진 태도에서 유비한다. 그는 “공산당원이라는 신분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가장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해야하는 자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 고생만 한다.”(2:258-259). 최인훈이 해방 직후 북한에서 읽었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1986년 2월 15일 한국에서도 간행되는데(전 2권, 조영명 역, 온누리) ‘시판금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정중현(2018), 『해금·전후금사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p. 52. 최인훈의 독서사에서 해금을 전후한 탈냉전의 시간은 냉전 형성기 그의 유년시기와 겹쳐 있는 시간이었다.

<현실>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이념에서 현실이 란 것은 최대의 권위가 있는 말이었다. 현실로 있다면 그것은 있을 만해서 있는 것이었다. 눈앞에 이성에서 벗어난 소행을 보면서도 그 깃발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것-혁명권력은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 말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가능성이었다. (2:252-253)

명문 경험과 자아비판회 경험. 작문 교사와 지도원 교사, 박성운의 사회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해방자로서의 소련과 억압자로서의 소련 등. 최인훈은 사회주의를 둘러싼 여러 이항대립과 모순 사이에서 고민 하였지만, 그는 해답을 유보하고 현실의 모순과 현실의 무게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논리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 5월 최인훈은 조명희가 스스로가 선택한 나라 소련에서 스파이로 몰려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보도를 접한다. 그리고 그 보도로 인해 최인훈은 그 자신이 유지하고 있던 논리적 균형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3. 냉전 이후의 소련행 — ‘명문에 걸맞은 현실’과 ‘현실에 걸맞은 명문’

포석이 그가 찾아간 나라에서 총살되었다는 소식은 (...) 「낙동강」의 심미적 울림에 어울리지 않았고, <박성운>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내가 접해 본 한도에서의 마르크스의 저작의 이성적 투명성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포석의 생애 전반에 뚜렷한 정식성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이라 한다. 스탈린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는 않았는데 포석에게 대해서는 공정했으리라 기대한 셈이었다. (...) 30년대 소련에서 몰아친 숙청 선풍은 이렇게 나 자신의 문제가 되어, W의 중학교의 그 밤과, 고등학교 문학교실에서의 감상문 사건

사이에 내가 유지시켜 온 구도를 일시에 허물어뜨렸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의 한 단원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자면 이렇게 한 생애가 필요하고, 역사가 갈 데까지 가기 전에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내가 산 세월의 문학 시간이었다. 「낙동강」이란 명문만 있었을 뿐, 『자본론』이란 <명문>만 있었을 뿐, 그에 걸맞는 현실도 지구의 그 부분에는 없었다는 결론인가? (2:270)

조명희의 비극적 최후는 최인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최인훈이 유지하던 논리의 균형은 붕괴하였고, 최인훈은 소련의 현실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마주해야 했다. 최인훈은 소련의 억압을 보다 무겁게 인정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인류 해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여 소련에 망명하였던 식민지 혁명가 조명희를 억압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최인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리한다. 그 자신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명문에서, 혹은 조명희의 「낙동강」이라는 명문에서 감동하고 만났던 사회주의의 이상향은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가, 곧 ‘명문에 걸맞은 현실란 존재하는가?’라는 화두가 그것이다. 최인훈의 소련행은 이 화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행은 「낙동강」 서술자의 언급처럼 “농이 참이 되는” 여정이었으며, 『화두』 서술자의 언급을 빌리면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는 이동이었다. 소련으로 가는 항로에서 최인훈은 “소련을 가보지 못 하셨 으면서도 그렇게 소련 얘기를 많이 하셨”던 지도원 선생님(2:364), 자신의 「낙동강」 독서감상문을 칭찬해준 작문 선생님을 떠올린다. 앞서 김윤식은 『화두』의 소련행이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주변에 한정된 ‘관광’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진단하였지만, 실인즉 러시아 작가협회의 초청으로 진행된 최인훈의 소련행은 1980년대 말 그가 읽었던 이태준의 『소련기행』의 여정을 되짚어 가는 것이었다.<sup>14)</sup>

비록 최인훈은 『화두』에서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단 한 번 언급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방 후의 이태준을 읽는 데 소련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소련의 멸망에 대해서 인상을 적어보려고 하면서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생각하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 경우(해방과 탈냉전 — 인용자) 모두 역사적인 큰 전환 사건이라는 점에서이다. 나머지 이유는 소련 멸망은 이태준의 「해방전후」의 후일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해방전후」에는 소련이 거대한 등장인물이었고, 이태준 자신이 그 거대한 등장인물을 찾아가서 만나본 기록인 「소련기행」을 남겼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소련이라는 힘의 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처럼 — 조명희가 그 전형인 —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생업의 대선배들의 그토록 많은 부분에게 <운명>이었던 존재의 결말에 대해 잡다하게라도 <전후>를 적어두는 일은 필요할 것 같다. (2:279)

1992년 최인훈이 소련기행에 나서기 직전, 조명희와 이태준 두 사람의 ‘운명’에 깊게 개입하였던 소련이라는 정치체제는 붕괴하였다. 최인훈은 소련이라는 운명의 의미, 그리고 ‘명문에 걸맞은 현실은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태준의 소련기행 여로를 되짚는다. 1946년 이태준은 레닌그라드의 동궁과 네바강, 그리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과 레닌묘, 그리고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반세기가 지난 1992년 최인훈 역시 그곳을 방문한다.

미트라스 박물관, 1766년에 ‘에카테리나’ 여왕이 개인 취미에서

---

14) 최인훈은 “포석 조명희는 모스크바에 와보았을까”(2:394)라는 질문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만약 조명희의 소련기행 기록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 기록 또한 되짚었을 것이다.

시작한 것으로 지금은 소련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다. 관장 오르벨리 박사는 동양학의 태두로 아르메니아 학자이자 이분 말씀에 의하면, 혁명 후는 동궁(冬宮)까지 편입시키어 학문연구자료 수집에 주력한다 하여 이란 문화와 조선 문화가 상이점이 많은 데 조선 것은 참고 품이 없어 유감이라 하였고, 앞으로 수집 예정이니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 총 장품(藏品) 160만 점, 대부분 동쪽 지방에 피난시켰다가 요즘 돌려왔기 때문에 아직 3분지 1 정도밖에 진열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 했다. 대부분 이태리와 불란서의 이름 있는 건축가들과 화가들의 손으로 된 공실들은 실내구조와 장치 그것이 장시간 볼 만한 공예인데 우리는 먼저 화랑들에서 눈이 피곤해지고 말았다. 다빈치, 라파엘, 루벤스, 렘브란트의 종교화들, 고대 희랍 출토와 미켈란젤로의 조각들, 그리고 관람에 가장 신중한 절차를 밟게 되는, 보물부는 구석진 아래층인데 순금과 금강석의 공예품과 역대 제왕, 승정들의 왕관, 면류관들이 그득 차 있었다.<sup>15)</sup>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네바 강변에 있는 초록색 벽에 아치 모양의 백색 창틀의 창문이 아름다운 3층 건물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동궁(冬宮)이었다. 황제의 겨울 거처였고, 10월 혁명에서 타도된 임시정부의 청사였다. (...) 해방되고부터 50년 월남할 때까지의 북한 생활에서 온갖 기회에 — 신문에서, 대중집회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주 접하게 되던 그 낱말 <동궁>(冬宮)의 현물이었다. 여행이란, 낱말 공부의 한 방식이기도 하였다. <동궁>이 실지로 있다니. (...) <동궁>에 대해서 내 안에서 형성돼 있던 <의미>와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마음의 운동에 휘말려서 방에서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운동은 이 범람하는 공간적 사물들보다 더 멀미를 일으켰다. 그것은 자칫 범람하고 싶어하는 <시간의 흐름>, <시간의 축적>이었다. (4:19-420)

레닌그라드 네바강변의 옛 동궁. 일찍이 조선의 문장과 미술, 고서

15) 이태준(2015b), 『소련기행』(조소문화협회·조선문학가동맹, 1947), 『이태준 전집 6』, 소명출판, pp. 143-144.

적에 대하여 “완상이나 소장 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고물(古物)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의 불사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정말 고완의 생활화가 있을 것”<sup>16)</sup>이라고 썼던 이태준은 이제 미술관으로 쓰이는 동궁에서 사회주의 국가 미술관의 내일과 조선 문화의 위치를 가늠하였다. 그와 달리 최인훈은 동궁 앞에 서서 ‘의미’와 ‘현실’의 일치에 감동하였다. 그가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북한 시절 무수히 들었던 ‘동궁’이라는 개념의 ‘현실’을 목도한 것이며 러시아 혁명의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련행을 통해 모든 고민을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명문에 걸맞은 현실’의 역사적 조건을 탐색할 수 있었고, 결정론과 법칙에서 벗어나 현실에 근거한 사유의 범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핵심은 그가 모스크바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조명희와 그의 동료들의 재판서류에 합철된 연설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설문은 소련 성립 5년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신경제정책(NEP)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이란 1921년 3월 제10차 소련 당 대회에서 강제 징발을 중지하고 수확량의 백분율로 산정된 현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된 조치인데, 도시와 농촌에 자본주의 경제관계를 허용한 것이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레닌의 「4월 테제」에 근거하여 주요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의 국유화를 단행한다. 하지만 백군과의 내전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경제봉쇄로 인한 경제 고립화로 인해 결국 소련은 그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중앙 집중과 정부 통제를 강제하는 전시 공산주의를 결정한다. 하지만 전시 공산주의의 결과 경제는 파괴되었고 인민들의 봉기가 이어졌다. 결국 1921년 레닌은 소련 경제에 자본주의적 관계를 도입하는 신경제정책

16) 이태준(2015a), 『무서록』(박문서관, 1942),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pp. 135-136.

의 시행을 결정한다. 신경제정책에 대한 레닌의 입장은 소책자 『식량 세에 관해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신경제정책이 정치적 양보나 이데올로기적 타협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10월 혁명 이래 당이 선택하였으나 내전으로 중단된 길, 즉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sup>17)</sup> 조명희가 소련기행에서 발견한 연설문 역시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를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이 소련의 현실에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이면서 성숙한 시선으로 기술하였다.

혁명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지배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2:487)

경제 계산의 이같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은 선형적으로 사색에 의해 혹은 사무실의 네 벽 안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가용한 물질 자원과 그 잠재적인 가능성과 사회주의 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관한 현재의 실제적인 계산방법을 점차 채용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장할 수 있을 뿐이다. (2:491)

연설문의 필자가 현실과 실천을 바라보는 입장은 선명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러시아 혁명 이후의 두 가지 첨예한 문제로 평화와 토지의 문제를 들었다. 또한 그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를 다양성으로 이해하였으며 양자가 과잉결정하면서 통일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룩셈부르크의 입장은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경직된 이해에 거리를 두면서 ‘사회적인 것’의 계기를 도입한 것이었다.<sup>18)</sup> 연설문의 필

17) 케빈 맥더모트 외, 황동하 역(2009), 『코민테른』, 서해문집, p. 62; 로버트 서비스, 김남섭 역(2017), 『레닌』, 교양인, pp. 636-638, pp. 675-690.

18) 로자 룩셈부르크, 박영옥 역(1989), 『러시아 혁명·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

자 역시 이미 선형적으로 소여된 법칙에 따라서 실천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현실의 상황을 존중하고 민중의 현실에 근거하여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설문의 필자는 현실에 대한 러시아 정치·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현실적 조건을 진단해간다. 하지만 연설문의 필자는 “퇴각이 <항복>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전진은 끊임없는 상승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코스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한다(2:496). 그는 “마르크스는 절대로 옳았다.”라는 신념에 근거하여 자신의 실천이 혁명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능성 하나하나마다를 끝까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였다(2:494).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연설문의 집필자가 자신의 연설문을 두고, 현실에 근거하여 집필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신경제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특수 조건에 맞게 계산되어 있다. 그것은 아직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살고 있으나 유럽 혁명의 가능성 위에 바탕을 둔 노동자 국가의 가동적인 정책이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운명을 점치는 경우에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절대적인 카테고리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부구조에 곧이곧대로 대응한 정치적 상부구조라는 도식을 가지고는 전환기 사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스킨라 철학의 표지일 뿐 마르크스주의자의 표지가 아니다. 우리가 정치적 계산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508)

연설문의 필자는 경직화된 도식으로는 전환기의 사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급한다. 대신 그는 “시간과 공간의 특수 조건”에 충분히 유의하여 정책과 연설문을 집필하였다. 이것은 단지 ‘현

두레, p. 48;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외, 이승원 역(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pp. 35-49.

실을 반영한 명문'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특수 조건에 유의한다는 것은 '결정론'의 도식이나 '허무주의'적 태도 양자 모두에 거리를 두면서, 현실의 조건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충분히 유의한 상황에서 "역사발전"을 모색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2:508). 이것은 러시아 혁명 이전 레닌이 고민했던 이중의 문제, "맑스주의 자체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과 러시아 운동을 맑스주의 노선에 따라 이끌어 나가는 것"과 공명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sup>19)</sup>

냉전 체제가 붕괴한 직후인 1992년 가을 최인훈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언급했듯 역사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뿐 아니라, 조명희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그 자신을 지탱해 온 논리적 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을 마주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명문과 현실의 낙차로 경험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는 '명문에 걸맞은 현실'을 찾아 소련행에 나선다. 그리고 그는 소련에서 조명희 등과 관련된 연설문 1편에서 현실에 근거한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결정론도 없고 허무주의도 없다. (...) 알만한 것을 다 알고, 검토할 만한 것을 다 검토하고, 실무자의 자상함까지 다 지니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고는 이 땅 위에서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있던 이만한 문체로 연설할 수 있는, 저만한 그릇의 사람들이 이 세기의 새벽 무렵에 저 성 안에서 인간의 운명을 놓고 신들과 언쟁하고 신들에 상관없이 할 일을 시작한, 그렇게 된 꼭절이었군요. 이처럼 조리있게 시작된 출발이 주인을 쫓아낸 찬탈자들에 의해 다른 길에 들어서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오다가 결국 망한 것이군요. 자기를 빼앗기면 지금 이 도시처럼 이렇게 된다. (...) 선생님은 저 환호 속에 계시는군요. 저 연설 속에 계시는군요. 아니, 저 연설이 선생님이지군요. 모스크바에서 저를 기다려주셨군요. 보잘것없

19) 에드먼드 윌슨, 유강은 역(2007), 『핀란드 역으로 — 역사를 쓴 사람들, 역사를 실천한 사람들에 관한 탐구』, 이매진, p. 534.

은 후배의 러시아 문학기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문학 공부는 어려우니라. 알아들었습니다, 선생님. (2:510-511)

최인훈은 연설문을 두고 “알만한 것을 다 알고, 검토할 만한 것을 다 검토하고, 실무자의 자상함까지 다 지니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고는 이 땅 위에서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문장, 곧 ‘현실에 걸맞은 명문’을 발견한다.

‘명문에 걸맞은 현실’을 찾아 떠난 최인훈의 소련기행은, 결국 ‘현실에 걸맞은 명문’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맺어진다. 20세기 초반 소련의 시작 역시 그러한 명문의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그렇게 시작된 소련이 찬탈과 변질로 인해 붕괴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붕괴를 목도한 바로 그 시간, 최인훈은 역사를 거슬러 20세기 초반 소련을 성립시켰던 이념, ‘현실에 걸맞은 명문’, 현실의 조건에 유의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복원한다. 그 이념은 “구조적 제약의 총체성”에 유의한 “반성하고 상호소통하는 다수의 주체성”에 근거한 ‘현실에 걸맞은 명문’의 이상이었다.<sup>20)</sup> 그 ‘명문’에 대한 환호 한가운데에서 최인훈은 조명희를 발견하였다.

#### 4. ‘레닌의 문장’의 비서구적 탈구축 — 혁명과 꿈, 혹은 현실과 민중

지금부터는 문학사적 맥락을 거스른 읽기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최인훈의 『화두』를 조명희의 「낙동강」 및 이태준의 『소련기행』과 겹쳐 읽을 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소련

20) 루츠 니트hammer, 이동기 역(2001),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 박종철출판사, pp. 208-209.

기행』의 비대칭성이 그것이다.<sup>21)</sup> 최인훈의 소련기행은 이태준의 소련 기행이 나아갔던 경로를 밟아간 것이면서도 그는 이태준의 소련 여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작품 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이 말하지 않는 것이며, 그 침묵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피에르 마슈레의 언급을 상기한다면,<sup>22)</sup> 최인훈의 『화두』가 보여준 이태준의 『소련기행』에 대한 침묵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레닌’이라는 인물과 의미론적으로 연관된다.

사진들로 동상들로 성세로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 레닌 선생은 보통 사람의 천배대(千倍大), 만배대(萬倍大)의 거인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각 앞에 계신 레닌 선생은 보통 인간의 일배대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실재인 것이다. 저 고요한 입이, 저 자그마한 손이 그처럼 위대한 것을 외치고 써내고 하셨던가! 인간은 위대하다! 실재는 적으나 인간은 무한히 클 수 있도다!<sup>23)</sup>

방에 들어선다. 방 한 가운데가 장방형의 3m쯤 깊이로 패어 있고 그 속에 레닌이 누워 있었다. 이 장방형의 대리석 무덤 구멍 자체에는 우리 키를 넘는 유리덮개가 씌워져 있다. 방에 들어서자 유리덮개를 통해 무덤 속의 레닌의 머리가 보였다. 우리는 그의 머리말로 방에 들어선 것이었다. (...) 레닌의 얼굴은 자그마하고 노랗게 보였다. 대머리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여서 그런지 어딘지 암전한 어린이 같았다.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여서 그런

21)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소련기행』의 비대칭성에 관해서 손유경은 “조명희의 「낙동강」에 인물(로사)과 작가(조명희), 그리고 독자(최인훈)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깃들어 있었다면, 이태준의 『소련기행』에는 자신이 직면할지 모르는 어떤 과거(혹은 현재)로부터 도피하려는 작가의 불안한 심리가 희미하게 엿보인다.”라는 분석을 제출한 바 있다. 손유경(2017), pp. 343-344.

22) 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2014),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p. 128.

23) 이태준(2015b), p. 165.

지 어딘지 암전한 어린이 같았다. 가슴 아래는 담요로 덮여 있고 레닌의 팔은 그 담요 위에서 두 손을 암전하게 포개고 있었다. 이것이 레닌이었다. (2:385-386)

레닌 묘. 1946년 이태준. 그리고 1992년 최인훈. 냉전 초기 이태준은 인간의 위대함을 웅변한 문장가로서 레닌의 존재를 감동적으로 부각한다. 하지만 탈냉전기 최인훈의 서술은 비교적 차분하다. 그는 잠든 레닌의 외모를 묘사한 후, “이것이 레닌이었다.”라고 담담히 그 모습을 기록할 따름이었다.

레닌 묘에서는 침묵하지만 『화두』 곳곳에서 최인훈은 ‘레닌의 문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것은 1989년 겨울에서 1991년 겨울에 이르는 시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단장 형식으로 기술하는 『화두』 제2권 제9장에서였다. 기록의 서두에서 그는 “소련의 모든 것이 다 나빴고,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라고 서술하였고, “그런(개혁의-인용자) 가능성은 물론 있었고 소련 인민의 고통의 최소화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옳았다”라고 단서를 붙였다(2:288-289).

소련의 붕괴 과정을 기록하는 최인훈이 주목한 것은 당시 소련의 정치지도자들이 앞에 세웠던 “레닌의 이름”이었다. 고르바초프 등은 “레닌의 전통과 유산”에 의거하여 개혁을 선포하였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믿었”지만, 개혁의 “결과는 레닌 자체를 부인하는 곳”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이 최인훈의 판단이었다(2:290.) 그는 TV를 통해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태원의 『금은탑』이 상기시키는 “두 마리의 요괴(妖怪)”를 떠올리면서 “고르바초프라는 동무가 개혁을 선언하기 전 현재의 소련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을까?”라는 가설적 질문을 던졌다. 흥미로운 것은 최인훈의 관심이 소련 정치지도자의 문장에 대한 비판적 진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와 주변 지도자들의 문체는 “케임브리지나 하버드의 졸업생처럼 말하고 서방의 공산권 전문 삼류 기자들의 용어와 수사법 그대로 자신들을 묘사”했다. 그들은 자신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수사법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2:292). 최인훈은 소련 정치 지도자들이 “서방 삼류 기자들의 속류 경제학”의 문장에 따라 “모든 인류 국가에 향존하는 <부패>”를 사회주의 “<체제> 모순”으로 명명한 것은 아닌가 질문하였다(2:337-340). 나아가 최인훈은 붕괴하는 소련 정치체제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하였다.

① 위대한 선배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희생 자체가 구조적 구성 부분이었던 <제도>를 마치 최신 <기계>를 상속한 것처럼 그 위에 안주하여 선배들의 희생에서 이자만 취득하고 자기 자신들의 투자야 할 창의적 노력과 도덕성에서의 숭선수범을 게을리 한 끝에 지배층인 자신들은 불로소득자가 되고 피지배층은 <제도>라는 신비한 요술기계의 기적에 기대를 거는 우매한 사이비 종교의 신도 같은 거지 근성의 소유자로 타락시켜 오다가 마침내 <계급의 적>의 체제를 능가하기는커녕 보통 생활 체제의 수준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자신들도 그 <기계>에 깜빡 속았다고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민중의 탄핵을 회피하는 한편으로, 어제까지의 <계급의 적>들과의 뒷거래로 민중들의 혼란 속에 밀어넣으면서 자신들의 득권을 수호하였다. (2:341)

스탈린이란 개인이 범한 죄악의 요괴 같은 파멸성은 다시 되새겨진다. 그는 혁명의 진행을 이보다는 사려 깊게, 자신들 인생과 보다 더 내면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지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로 방대한 인간자원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개 그런 규모의 인간 절멸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소탕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유지되어 ②

온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어느 구석에서도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2:342)

최인훈이 지적한 소련 체제의 첫째 문제는 지배층이 창의적 노력과 도덕적 솔선수범과 절연한 채 탈인격화한 ‘요술기계’로서 국가체제를 승계하고, 그 자신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었다(①). 둘째 문제는 스탈린 숙청 이후, 혁명과 스스로의 주체성을 연결한 민중의 목소리가 발화할 가능성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다(②).

그런데 최인훈이 소련 정치지도자의 문제로 들었던 자신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레닌의 문장’의 기본 조건이다. 레닌은 혁명적 미사여구를 격하하고 전통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동의어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는 명명에 반대하고 언어와 대상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24)</sup> 레닌의 글은 객관적이었고 평이하고 강력했으며, 선명하고도 명쾌하고 간결한 문체를 갖추었으며, 충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을 들었다.<sup>25)</sup>

언어와 대상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던 레닌과 마찬가지로, 최인훈 역시 언어와 대상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나의 생각을 나의 문장(언어)으로 발화한다.’라는 명제는 「광장」 이래 최인훈 문학에서 주체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준칙이었다.<sup>26)</sup> 최인훈은 소련 체제의 두 가지 문제를 ‘레닌의 문장’의 부재에서 찾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인훈이 ‘레닌의 문장’을 고민할 때, 러시아의 혁명이 ‘레닌의 문장’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문학의 선배인 조명희와 이태준의 문장을 통해서 ‘레닌의 문장’을 사유하였다. 그는

24) ヴィクトル・シクロフスキイ 他, 桑野隆 訳(2005), 『レーニンの言語』, 水声社, p. 18.

25) 에드먼드 윌슨, 유강은 역(2007), pp. 529-530.

26) 최인훈은 언어와 현실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광장」을 거듭 다시 썼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장문석(2014),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기」,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 382-414 참조.

소련 체제의 문제로 정리한 ① 혁명과 꿈의 문제, ② 현실과 민중의 문제를 각각 최인훈의 조명희 읽기와 이태준 읽기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최인훈은 (문학의) 역사를 거슬러 비서구 한국근대문학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레닌의 문장’을 탈구축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4.1. 혁명과 인간의 꿈 — 최인훈의 조명희 읽기

『화두』의 서술에 등장한 인간적인 능력, 자기희생, 창의적 노력, 도덕성에서의 숭선수범과 ‘제도’라는 개념이 썩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인훈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계기로서의 ‘꿈’ 혹은 ‘고뇌’에 주목한 바 있다.

스스로 있는 자연처럼 혼자 흘러가는 역사의 타성에 노예가 된다면 사람은 고뇌라는 것과 인연 없는 한평생을 지낼 수 있다. 이 타성을 휘어잡고, 그것의 주인이 되자고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짐승에게서 갈라선다. 노예에게는 고통은 있지만 고뇌는 없다. 고뇌(苦惱) - 마음의 아픔이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아픔도 없다. 마음은 아직, <밖>에는 없는 것을 자기 안에서 꿈꾼다. 이 꿈과 현실을 비교한다.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고 행동한다. 그는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좌절하더라도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좌절한 것이다. / 포석 조명희도 그래서 소련으로 갔다. (2:253)

그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계기로서 꿈과 고뇌에 주목하며, 인간의 꿈에 근거하여 조명희가 소련행을 선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명희에 대한 판단은 최인훈만의 것은 아니었는데, 최인훈이 소장했던(2:263-264) 소설집 『낙동강』(건설출판사, 1946)의 「중간사」(重刊辭)에서 임화는 「낙동강」을 두고 “자유에 대한 누를 수 없는 희원(希願)”을 담은 “우리 신문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재산”이라고 고평하였다.<sup>27)</sup>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비평가 임화는 “꿈을 가진 것으로써 비로소 인간이(동물이 아닌!)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행동과 함께 있는 꿈”이라는 명제로 요약하였다.<sup>28)</sup> 나아가 더 멀리로 청년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동물은 단지 육체적 욕구에 지배되어서 생산할 뿐이지만, 한편 인간 그 자체는 육체적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생산하고, 나아가 육체적 욕구로부터의 자유 가운데에서 비로소 참으로 생산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인간은 “그에 의해 창조된 세계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유적 존재”로 인식한다고 통찰하였다. 나아가 “풍부한 그리고 모든 감각을 충분히 갖춘 인간”을 공산주의적 인간의 이념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29)</sup>

최인훈은 소련의 국가 체제가 탈인격화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련의 정치가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이념과 실천에서 멀어져 있음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꿈에 근거하여 실천(혁명)을 상상하는 태도는, 최인훈으로부터 임화, 조명희 그리고 청년 마르크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최인훈은 1930년대 임화와 마찬가지로 “꿈이 현실이 되게 행동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최인훈의 언급은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서술자가 박성운이 로사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과 함께 제시한 “농이 참된다”라는 진술과 공명하면서 그 언급에 깊이를 부여한다. 동시에 7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낙동강」의

27) 임화(1946), 「중간사」, 조명희, 『낙동강』, 건설출판사, pp. 107-108.

28) 임화(1940), 「위대한 낭만적 정신 — 이로써 자기를 관찰하라!」, 『문학의 논리』, 학예사, pp. 27-28. 임화의 『문학의 논리』는 1989년 서음출판사에서 재간행되었다. 1930년대 임화 비평과 공산주의적 인간형에 관해서는 손유경(2008), 「임화의 유물론적 사유에 나타나는 주체의 위치(position)」,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학회 참조.

29) 칼·마르크스, 城塚登 他 訳(1964), 『経済学·哲学草稿』, 岩波書店, pp. 96-97, p. 140.

‘농’과 『화두』의 ‘꿈’은 공명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고 행동한다”라는 식민지 조선의 하층 계급 출신 여성 로사의 지향에 높이를 부여한다.<sup>30)</sup> 최인훈은 인간이기 때문에 꿈과 고뇌가 있으며, “그래서” 조명희가 소련행을 선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꿈과 고뇌에 근거하여 심미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박성운>은 지도원 선생님보다 더 높은 인물이었고, 박성운을 창조한 포석 조명희는 <박성운>보다도 더 높은 인물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박성운>을 등장시킨 독서감상문을 문학 선생님께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마치 포석 조명희로부터 인정받거나 한 것처럼 전이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나의 인격 일부는 <박성운>과 통할 수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포석과도 통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 「낙동강」이라는 명문에서 경험한 심미적 감동은 나에게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신뢰로 작용하였다. 학식이 모자라므로 마르크시즘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나는 내가 접한 명문에 대한 감동을 그에 대신한 것이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 된 이념에는 그만한 이성적 보편성이 있다고 나는 환산(換算)였고 그 환산을 육신으로 보장한 존재가 포석이었다. (2:269-270)

최인훈은 「낙동강」과 독서감상문이라는 텍스트 두 편을 매개로, 작문선생-최인훈-박성운-조명희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소통은 이성과 감성을 통한 보편성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정치적 신뢰”, 즉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구축 역시 그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0) 조명희(1946), p. 26, p. 28. 최인훈의 『화두』에서 「낙동강」의 ‘농이 참이 된다’는 진술이 갖는 의미는 손유경(2017), pp. 337-338 참조.

## 4.2. 현실적 민중의 형상과 지식인의 위치 — 최인훈의 이태준 읽기

냉전 체제가 붕괴하는 시기 최인훈이 특히 공을 들여 읽은 작가는 이태준이었다. 그는 해금 이후 “근래에 나온 전집에서 이태준의 글 모두를 읽”었다(2:53).<sup>31)</sup> 최인훈은 이태준의 소설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 텍스트 내부에 이원적인 시선을 배치하여 두 시선의 긴장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두고 최인훈은 “적당한 분량의 작가의 자아가 작중인물들에게 주어지고 남은 자아는 이 편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중구조의 “거리가 모든 작품을 예술이게 하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이에 반해 거리와 긴장을 유지하지 못한 작품에 대하여 최인훈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컨대 「사상의 월야」를 제외한 장편소설은 작가와 특정 인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남는 자아’가 없어서 “그 많은 장편에서 단 한 편도 읽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해방전후」의 해방 이후 서사 역시 “이상적 자아에서 현실적 자아로 나가는 과정”이 충분한 거리를 갖추지 못하고 “허술”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2:53-54, 64-65).

최인훈이 이태준의 작품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은 역사의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참조의 대상으로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었다. 최인훈은 「해방전후」를 이상과 현실을 다소 거칠게 융합했지만 의미 있는 작품이라 판단하였다. 그것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상황 앞에서 이태준이 김노인이라는 문제적인 인물의 형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치 앞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별자리가 제일 잘 보인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바른 대응 관계를 찾자면, 우리 환경에 대

31) 월북작가 해금 전후 이태준 전집의 간행상황 및 맥락에 대해서는 장문석(2018), 「월북작가의 해금과 작품집 출판(1) — 1985-1989년 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p. 54, p. 60, p. 95 참조.

한 우리 태도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럴 때의 대수적 거울로서 옛사람-옛 시대는 도움이 된다. (…)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나는 이 관점에서 이해한다. 「해방전후」에서 주인공-작가 자신-은 해방 직전에 시골로 내려[가] (…) 거기서 만난 <김직원(直員)>이라는 옛 선비와 어울리기도 한다. 이 김직원은 <대한제국>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민족의식, 역사의식, 정치의식, 선비의식, 지식인의식, 인간성의 표현이다. 이 노인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의 구체성과 노인 자신의 성품의 구체성이 어우러져 한덩어리가 되어 이것들을 살아 있는 형상이 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곧 <김직원> 노인이다. 왕손을 다시 한 번 황제의 자리에 모신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이 노인의 인간성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의 인격은 <한일합방>의 시점에서 동결돼 있다. 그에게 구체적 전쟁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막연한 기대가 전부이다. (2:60-61)

역사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인훈이 옛시대-옛작가를 참조하였다. 그것을 ‘대수적 거울’로 삼아서 자기 객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는 선행 문학자 이태준과 선행 작품 「해방전후」의 인물을 참조하였다. 이때 최인훈은 역사(현실)의 구체성과 인물(인격)의 구체성을 갖춘 인물 형상에 주목하였다. 「해방전후」의 김직원이 그 예였다. 어떤 점에서 김직원은 구시대적이며 ‘막연한 기대’를 가진 완고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의 현실 인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형상이었다. 최인훈은 앞서 혁명의 이상을 갖춘 민중뿐 아니라, 미성숙하고 때로 모순되는 민중의 형상에도 유의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거울은 모순의 거울이었다는 것, 즉 직선적으로 명확한 역사적 직진의 궤도를 조명하는 거울이 아니라, 잡다한 농민적 사상과 욕구의 험잡물로 인하여 복잡화된 그것이었다. / 다시 논문의 저자는 단순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평가를 경계하고 있다. (…) 「톨스토이」의 민주주의적 평가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적 평가와 본질적으로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는 이러한 방법으로만 일치하고 또 이러한 방법만이 비평 특히 문학적 평가에 있어 비로소 과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톨스토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주는 바의 제한정 가운데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현실을 자기의 예술적 창조 우에 반영하고 그것으로써 역사발전의 객관적인 전진 운동과정 가운데서 한 개 추진력의 요소일 수 있었던 때문이다.<sup>32)</sup>

1935년 임화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모순의 거울’로 이해한 레닌의 톨스토이론(1908)을 소개하였다. 레닌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러시아 혁명의 거울인 이유는 그가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혁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진적이고 러시아의 모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레닌은 톨스토이의 이념은 “가부장적인 농촌의 연약함과 ‘진취적인 무지꼬’의 편협한 소심함의 반영”이라 평가하였으며, 1905~1906년 병사폭동에서도 그가 주목한 것은 농민과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된 병사의 “자주성”(self-dependency)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톨스토이는 “티질듯한(pent-up) 증오, 보다 나은 운명을 위하여 무르익은 분투, 과거를 제거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꿈, 정치적 무경험, 혁명적 연약함도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33)</sup> 임화는 레닌의 톨스토이론으로부터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이라는 역사 및 사회적 조건의 한정에 유의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예술적 창조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최인훈 역시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른 전형적인 인물에 거리를 두면

32) 임화(1935), 「‘거울’로서의 톨스토이」, 『조광』, 1935.1, p. 377. 이 글은 임화의 필명 쌍수대인으로 발표되었다.

33) 블라디미르 레닌, 이길주 역(1991), 「러시아 혁명의 거울인 레프 톨스토이」, 『레닌의 문학예술론』, 논장, pp. 60-62.

서, 한국사회의 특징에 근거한 인물 형상에 유의하였다. 그가 「해방전후」에서 해방 이전 ‘해내’에 있던 현이 일본의 패망을 예감하는 서술이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거나, 해방 이후 이태준이 이상적 자아로 경도되면서 서사의 밀도가 오히려 느슨해진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였다(2:61, 65).

상허(尙虛)의 모든 단편의 인물들 역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굴복한 사람들, <역사>가 아니라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독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려내는 작가의 소재 <선택> 자체는 세월의 바람만 쐬는 붓길이라 할 수 없다. 드러내지 못하는 슬픔의 기운이 있는 붓끝이다. 그래서 그의 단편의 모든 인물들은 이용악의 시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웃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된다. 이쪽은 유랑할 팔자도 못돼서 그저 살던 자리에 있을 뿐이다. (2:54-55)

최인훈은 이태준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굴복한 사람들, <역사>가 아니라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태준의 소설을 통하여 한국이라는 역사적 조건 안에서 현실과 인격의 구체성을 갖춘 민중의 구체적인 형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용악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태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웃”이라고 명명하였다.

역사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인훈이 옛시대-옛작가를 참조하면서 역사 속의 민중의 형상에 유의한 것은 냉전 붕괴 시기가 처음은 아니었다. 1970년 데탕트를 전후하여 역시나 역사의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최인훈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을 문학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72)을 창작하면서 민중의 일상에 대한 존중과 친밀권에 근거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공권을 구축하였다.<sup>34)</sup> 20년 후 최인훈은 냉전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역시 역사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때 이태준과 이용악을 경유하여 역사 속의 민중의 형상을 고민하였다.

탈냉전기 최인훈은 선배 한국문학자에 대한 읽기를 통해 인간의 꿈과 고뇌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실천과 행동의 근거를 모색하였고, 다른 편 한국 역사의 조건 가운데서 인격의 구체성을 갖춘 민중의 형상을 탐색하였다. 이 탐색은 비서구 한국문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레닌의 문장’의 조건을 탈구축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역사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인훈에 앞선 임화, 이태준, 조명희, 나아가 마르크스에까지 문학사적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 5. 사회주의라는 이념형 —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

최인훈은 특정한 공간을 방문하여서는 그에 선행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곤 하였다. 예컨대, 그는 이태준의 우거였던 수연산방을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이태준에게 마음의 인사를 전한다. “대문을 나서서, 이 집 담이 끝나는 언저리에서 돌아본다. 상허 선생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돌아보는 시늉 속에 누군가 엿히는 느낌이다. 그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나섰을 때도 필시 이렇게 돌아보았을까.”(2:114). 소련기행 역시 그에게 공간적인 이동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시간적인 상상력을 추동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최인훈은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길목에서 90대 러시아인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그의 생애사가 “<영민(領民)-신민(臣民)-공민(公民)-시민(市民)>이라는 각기 질을 달리하는 시간의 퇴적으로 이루어진 <시간구성체>”일

34) 장문석(2017), pp. 280-296 참조.

수 있다고 상상한다. 한 사람의 생애사에 다양한 정치적 시간의 지층으로 구성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시간구성체가 아닌가.”라는 상상에 도달하였다(2:433). 소련기행 곳곳에서 최인훈은 시간적 경험에 대한 기술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란 나의 전 생애였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여러 폭 있고, 루벤스의 작품도 여러 개 되며, 고갱, 피카소까지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곳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기에 앞서 <동궁(冬宮)> — 네바 강에 들어온 전함 오로라 호의 포격을 받은 혁명의 무대였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일이 아니었다. 그런 혁명의 무대였다고, 「플렌더스의 개」에 열중하던 그 같은 나이에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에게서, 신문에서, 책에서 접하기 시작하고 평생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의 응축이었다. (2:419-421)

다시 레닌그라드 네바강의 동궁. 최인훈은 러시아 혁명의 장소 동궁 앞에서 루벤스, 렘브란트, 고갱, 피카소의 그림에 눈길을 주기보다는 “시간의 응축”에 대해 인상 깊게 서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련 레닌그라드 동궁에서 발견한 시간의 응축은 최인훈의 생애사를 환기하면서, 한반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전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바스티유의 감격도 없고 동궁(冬宮) 습격의 흥분도 없다. 기요틴(단두대)에서 흐르던 피를 목격할 조선인민은 없으며 동상과 조각을 함마로 부수며 대리석 계단을 몰려 올라가서 황제의 침실에 불을 지르던 횃불을 들어본 조선인민은 없다. 그들은 혁명의 소문만 들었을 뿐이다. 삼십 년 전에 흥분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감정의 천재다. 1789년에 있는 흥분의 얘기를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천재다. 하물며 남의 나라의. 세계는 하나라? 그건 흥분들이 있었던 다음부터의 얘기다. 북조선

인민에게는 주체적인 혁명체험이 없었다는 데 비극이 있었다. 공문(公文)으로 시달된 혁명. 위에서 아래로. 그건 혁명이 아니다.<sup>35)</sup>

4·19혁명 이후 최인훈은 「광장」에서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은 혁명의 소문만 듣고 혁명의 공문만 시달 받았으며 사실상 북한에 혁명이 없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최인훈에게 동공의 의미망은 한국의 4·19혁명을 거쳐 해방 직후 유년 시절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었고 그의 생애사적 시간으로 수렴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편 위의 진술에서 보이듯, 동공의 의미망은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 혹은 “세계는 하나라?” 등 사회주의의 국제주의적 성격이라는 의미의 잉여와도 언뜻 겹쳐 있다. 이 잉여의 의미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최인훈이 소련기행에서 만나는 시간의 응축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최인훈의 생애사적 시간 경험으로 수렴하는지,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시간 경험과 조우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남은 레닌그라드에서 있었던 최인훈 일행과 통역자인 대학생 블라디미르의 조우이다. 블라디미르는 구소련 대학생으로 한국어를 발화하는 외국인이다. 최인훈 일행이 그에게 전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 블라디미르는 “가야 역사 전공이노라” 대답하는데, 그 대답으로 인해 “차안은 순간 차분해졌다.”(2:414)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스탈린 시대의 아파트지만, 제국의 권위를 과시하는 식의 고전양식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것이 전철역입니다. 전철역에도 돛형 지붕이 많습니다. 왼쪽이 시청입니다. 제국(帝國)의 정치주의적 건축양식입니다. <제국>이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다르기는 <다른 시간>의 축적 속에 들어오기는 한 모양이다. (2:416)

35) 최인훈(1960), 「광장」, 『새벽』, 1960.11, p. 283.

주변부의 지식인 최인훈이 놀라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블라디미르가 설명 중에 ‘제국’이라는 단어를 쉽게 발화한다는 점. 최인훈은 러시아가 제국이라는 사실과 후식민지 한국과 ‘다른 시간’ 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 하나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야사 전공 대학생을 만났다는 점. 최인훈은 “우리과 오래 접촉한 일본이나 미국사람들조차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와 친근하려는 노력이 보잘 것 없는 현실에 비겨보면 이 고장의 구체제가 우리말을 하는 사람을 이만큼 흔하게 길러왔다는 사실은 흐뭇한 일이다.”(2:444)라고 언급한다. 물론 한국어에 능숙한 러시아인 블라디미르를 만난 최인훈의 반응이 ‘흐뭇함’으로 수렴한 결과는 앞서 김윤식이 최인훈의 소련기행이 “기껏해야 관광 수준에 멈”추었다고 비판적으로 판단한 사례에 부합한다. 파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최인훈의 관심은 러시아 “구체제”의 문화적 역량을 거둬 떠올린다. 『모스크바 일기』에서 발터 벤야민이 황금색 쿠폴라를 보면서 “설탕에 버무린 오리엔트”를 떠올렸듯,<sup>36)</sup> 『화두』에서 최인훈 역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가 파리나 로마 등 “전통적 정취가 기조가 되어 있는 도시”(2:415)라는 통찰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시간에 접근해간다.

### 5.1. 낯선 한국어의 문화적 토대 — 소련의 조선어와 조선인

최인훈이 궁금해 했던 바, 러시아인 청년이 “알고하는 외국말”로서 “알아듣기에 아무 불편 없는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된 사회문화적 토대는 『화두』에서는 소련 ‘구체제’의 문화적 역량이라는 문제제기를 넘어서지 않지만, 이 문제는 이태준의 『소련기행』에서 보다 풍성하게 포착된다. 이태준의 소련기행은 조소문화협회의 공식적인 행사로 그

36) 발터 벤야민, 김남시 역(2015), 『모스크바 일기』, 길, p. 316.

공식적인 기록인 『소련기행』 역시 전체적으로 단성적인 발화를 면치 못하였다.<sup>37)</sup> 하지만 이태준은 소련기행 여정 곳곳에서 자신이 소련에서 간행된 조선어 서적의 목록을 성실하게 기록하였다.<sup>38)</sup> 이들 조선어 서적과의 만남은 이태준에게 익숙했던 조선반도, 조선인, 그리고 조선어라는 현실 외부와의 만남을 의미했다.

1933년 이후 외국노동자 출판부를 중심으로 출판된 조선어의 사상, 문예 서적은 6, 70 종에 달하리라 한다. 조선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 37년 이후는 중단되었다 하며 지질과 제본이 실질적이게 튼튼했고 백 페이지 넘는 것은 형겅뚜겅을 썼다. 잠깐 주독(走讀)해보아, ‘매우 힘들었다’를 ‘모질게 빠뻤다’투의 함복 사투리가 많고 문맥이 유창치 못한 듯하나 태도만은 진실한 것이 느껴졌다. 물론 소련으로서 세계에 향한 중요 과업의 하나였겠지만, 백여 종의 번역

- 
- 37) 『소련기행』에서 이태준은 일부 균열을 제외하고는 신생국가 북한의 건설에 협력하는 단성적인 목소리를 발화하였다. 임유경(2016), p. 182.
- 38) ■ 블라디보스토크 격리촌의 오락천막(pp. 19-20): 『전동맹공산당 강령과 규약』(1936년판), 『스탈린과 붉은 군대』(외국노동자출판부, 1936년), 『레닌의 유년 및 학생시대』(울리아노바, 하바롭스크 원동변강국립출판부, 1937년), 『농촌사업에 대하여』(스탈린, 1933년판), 『파시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1935년판), 『레닌선집』(1934년판), 『1905년 혁명에 대한 보고』(레닌 저), 『당사업의 결점에 대하여 서와 트로츠키파 및 기타 표리부동자들을 청산하는 방침에 대하여』(스탈린 저, 1937년판), 『스탈린 동무의 연설』(1935년판), 『까스판까』(체호프 동화, 1937년판, 정오표 부), 『별로모르 아저씨와 알료사 라잔이야기』(카실 동화, 1936년판), 『파괴』(파데예프 소설, 김준 역, 1934년판), 『고르키 단편집』(김춘성 역, 외국노동자출판부판, 1937년) ■ 모스크바 서점(p. 71):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오스트로프스키), 『스탈린선거연설』, ■ 레닌그라드 종합대학 동양학부 도서실(p. 145): 소련 간행 조선어역 사상서적 전부 및 원동 조선인 학교 편찬 『조선역사』, 『조선어독본』 30-40종, 노문(露文) 조선어 회화책(1874년판), 불문(佛文) 『조선문화사』, 조선고본 『춘향전』(전주판), 『맹자언해』. ■ 레닌 묘(p. 169): 『레닌선집』, 『청년 후진에 대하여』(레닌), 『레닌주의 제 문제에 대하여』(스탈린), 『레닌의 유년』(스탈린), 『두 연설』(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스탈린), 『레닌 생애』(쾨르센체프) 등.

이란 번역자들의 노력도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과 같이 국내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이미 입에 서 틀러진 모어(母語)로 한 마디 한 줄씩 뇌이고 다듬고 했을, 이 이역에서 고국을 향한 진실했던 침묵의 노력을 생각할 때,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이런 일에 응당 그분의 힘이 많았을 것 같은 포석(抱石) 조명희(趙明熙) 씨였다.<sup>39)</sup>

“册만은 ‘책’보다 ‘冊’으로 쓰고 싶었다. (...) 册은, 읽는 것인가? 보든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冊”<sup>40)</sup>이라고 언급한 바 있던 이태준은 소련에서도 낯선 조선어 서적의 제본을 어루만진다. 비록 소련의 조선어 서적의 조선어 문장 자체는 서툴렀지만, 그 번역이 “국내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서툴러진 모어(母語)로 한 마디 한 줄씩 뇌이고 다듬고 했을” 진실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여기서 이태준은 조명희를 떠올린다.

하지만 소련기행이 이어지면서 이태준의 관심은 경험과 관심은 확장되어 소련에서 간행된 조선어 서적이 간행된 맥락과 그 실천에 개입한 조선인의 상황을 점차 구체적으로 포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소련의 조선어 번역은 모스크바의 출판기관인 외국출판부(옛 외국노동자출판부)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인 3명이 여기에서 조선어 번역을 담당하였고, 이태준의 소련기행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탈식민지화의 맥락으로 번역자들이 귀국하면서 기존 46개국부가 35개국부로 축소된 상황이었다. 조선어 번역서적은 1938년까지 67종이 간행하다가 이후에는 조선 내 반입이 어려워져 중지했다가 최근 『조국전쟁』(스탈린), 『당사』(黨史, 스탈린), 「젊은 전위대」(파테예프)로 번역을 재개한 상황이었고, 의역(意譯)은 가능하지만 조선어 문장에 자신이 없어서

39) 이태준(2015b), pp. 20-21.

40) 이태준(2015a), p. 82.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태준이 만났던 외국출판부 조선부에서 번역을 담당한 김동식은 “어려서 조선을 떠나 소련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나아가 이태준은 소련에서 유학 및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소련서 성장한 조선 사람들 [중]에 지식인[이] 많음에 놀”랐으며, 그들이 대개 “연해주에 흩어졌던 적빈(赤貧)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태준은 “두만강변에 유리하던 한 개 빈농의 자손”이 “현대학문의 전공”을 밟아 “우수한 문화인”으로 성장한 사례를 만나게 된다. 소련의 국가 제도에 근거한 번역만 있던 것은 아니다. 이태준은 “원동에 있던 조선인 학교에서 편찬한 『조선역사』 『조선어독본』 등 3, 40종”과도 조우하였다. 이 책에 대해서 이태준은 “내용을 일별할 시간은 얻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소련기행』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sup>41)</sup> 정말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이태준이 부러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책 30-40종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동 지역에 살던 조선 민중의 삶에 근거한 책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1992년 최인훈이 소련기행에서 블라디미르의 한국어를 보면서 궁금해 하던 그의 한국어가 근거한 문화적 토대의 실체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최인훈 일행이 만난 “알맞게 큰 키에 말랐으며, 금발에 유별나게 어려 보이는 젊은이”, 곧 가야사를 전공하는 통역자 티코노프 블라미디르는 한국사 연구자 박노자이며,<sup>42)</sup> 그의 스승은 미하일 박이다. 미하일 박은 1918년 연해주 하연추에서 태어났으며 1930년대 농촌 협동화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원동(遠東) 곳곳을 전전하였다. 그는 1936년 모스크바의 철학·문학·역사 대학(MIFLI)

41) 이태준(2015b), pp. 157-158, p. 49, p. 174, p. 145.

42) 강성만(2018.9.16.), 「“한국 존립하려면 힘들더라도 이민사회 본격 준비해야” —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사학자 박노자 교수」, 『한겨레』, 2018.9.16.

에 입학하였으며,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속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시에서 미간(未刊) 『조선역사』, 『동학폭동전』을 통해 계봉우에게 사사받으면서 한국 역사에 입문하였다. 1938년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가 무고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는 1945년부터 소비에트 강단에서 한국역사 강의를 맡았고 1949년 이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한국사 강좌 교수를 맡았다. 그의 학설은 북한에 번역 소개되어 논쟁을 촉발하였다.<sup>43)</sup> 이 점에서 블라디미르의 한국어를 지탱하는 문화적 토대는 이태준에게 낯설어하면서 조금씩 접근해갔던, 소련에서 흠어져서 살았던 조선인 민중의 삶과 언어, 그리고 학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 5.2. 혁명의 시간 — 보편성과 주변성

최인훈은 해방 이후 이태준의 문학을 읽으면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계기를 도입하였다. 그는 이태준이 『문장강화』에서 인용한 자신의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을 명문으로 들면서 그 문장을 예거하였다. 같은 해방 이후의 작품이지만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과 「해방전후」는 여러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최인훈의 읽기에서도 두 글의 비교가 가능하다. 최인훈은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의 장처로 “애국자들의 이상적 인격과 현실적 인격은 통일돼 있는 데 비하여, 화자의 이상적 인격과 현실적 인격은 분열돼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비해서 「해방전후」는 “이상적 자아에서 현실적 자아로 나가는 과정은 허술하다”라는 것이 최인훈의 읽기였다(2:65).

43) 박노자(2002), 「러시아 한국학의 개척자 — 미하일 박 교수」, 『한국학』 25(3),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94-293; 박노자(2013), 「계봉우와 미하일 박의 한국학 — 근현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학연구』 2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pp. 211-231; 홍종욱(2020),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4장 참조.

나는 재내(在內) 3천만의 하나로써 개선입성(凱旋入城)하는 동포, 특히 혁명동지 여러분을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역사 오랜 민족으로 흥망 없는 민족이 있으리오만, 이번 우리처럼 외적에게 심각한 제압을 받은 민족은 인류사상에 그 유(類)가 드물 것이다. 같은 피압박민족에게서도 우리는 그 환경과 비중을 달리해 ‘민족자결’을 표방하던 국제연맹 시대에도 우리 수족은 풀리지 못하였었다. 안으로는, 민족의 최후재(最後財)인 모어(母語)와 예속(禮俗)까지도 소멸되는 위기에 직면했었고, 밖으로는, 국경 이북과 자유도시 상해까지도 적세(敵勢)권내에 들어, 세계는 넓다 하나 우리 혁명동지는 기(旗) 들 하늘이 없도, 칼 짚을 땅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유란 백년하청을 기다림같이 망막(茫漠)한 것이었는데, 문득 오늘, 이해방과 자유의 종소리란 과연 무슨 꿈인가! / 경이일 뿐, 꿈은 아닌 것이다. 이 세계혁신의 대현실 앞에 꿈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상기(相起)하기에 얼마나 명료한가? 적의 강제적 보호조약을 비롯해, 합당 당시며, 3·1운동 때며 또는 적의 착취수단이 고도의 자본주의화할 때마다 일어나 허다한 사상전(思想戰), 혹은 투혹, 혹은 축방(築防), 혹은 피살, 동지 여러분은 그중에서 구사일생을 얻어, 후에 이날 있을 것을 산맹해서(山盟海誓)하고 천애(天涯)에 표표히 망명하였던 것 아닌가? (...) 더욱, 생각하면, 우리는 얼굴 둘 곳이 없노라. 희랍의 어떤 철인(哲人)은, 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야만이 아니라 희랍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신에게 감사하노라 하였다. 적의 가지가지 간책(奸策)과 폭정하에, 우리는 적을 위하는 충을 들어야 했고, 우리는 피처럼 아픈, 뜻 아닌 말과 글을 배알아야 했다. 호소할 곳이 없이 유린될 대로 유린된 민족의 정조, 오오, 우리는 차라리 금수와 만인(蠻人)으로 못 태어났음을 얼마나 한하였던가! 이제 무슨 낮으로 성한(聖汗)에 젖은 동지들의 위용(偉容)을 우리러 볼 것인가!<sup>44)</sup>

44) 이태준(2005),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 『문장강화』(박문출판사, 1947), 창비, pp. 175-177.

「해방전후」의 김지원 영감은 ‘임시정부-해외’와 인접성의 의미망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현이 인접한 ‘조선문학가동맹 — 박헌영’의 의미망과 긴장을 일으킨다.<sup>45)</sup> 앞서 살펴보았듯 김지원 영감이 쇠락한 대한제국이라는 조선반도의 사라진 국가의 시간과 연결된다면,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은 “국경 이북과 상해”의 공간, 혹은 “3·1운동”의 시간 나아가 ““민족자결”을 표방한 국제연맹 시대”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즉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에서 이태준은 탈식민의 해방공간 “세계혁신의 대현실”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간을 환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간은 3·1운동의 시간, 국제연맹의 시간, 나아가 러시아 혁명의 시간이었다.

1930년대 소련 역사학은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강조점을 이동하였으며, 냉전 형성기 북한 역사학 역시 그러한 시각을 승인한 바탕에 구성된 것이었다.<sup>46)</sup> 20세기 사회주의 역사학의 성격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최인훈은 『화두』에서 이태준의 「재외 혁명동지 환영문」을 통해서 “섬광”<sup>47)</sup>처럼 3·1운동의 시간을 귀환하도록 한 것이다. 최인훈 역시 국가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문학의) 역사를 거슬러 국제주의적 시각이 귀환하도록 하였다.

제1차대전은 식민모국 사이의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었다. 열강이란 이름의 맹수들이 사냥터의 기득권의 수호와 재분할 요구를 앞세워 전 세계 규모로, 그리고 당연히 인류사상 최고의 파괴력을 동원하면서 동종(同種) 살육을 벌였다. /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던, 사회

45) 김민수(2018), 「해방기 문학의 ‘전후’ 담론과 그 표상 — 전후문학 개념의 재고를 위한 하나의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54, 한국현대문학학회, pp. 296-304.

46) 조호연(2001),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인문논총』 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 193; 홍종욱(2020), 2장 참조.

47)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 野村脩 訳(2000), 「歴史哲学テーゼ」, 今村仁司, 『ベンヤミン 「歴史哲学テーゼ」精読』, 岩波書店, 2000, p. 60.

적 진화의 후진성 때문에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라고 불린, 제정(帝政)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제정을 전복한 새 정권이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독일과 강화하여 전쟁에서 빠져나왔다. / 그것이 1917년 11월이었다. / 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자신들을 볼셰비키라고 부르고 유럽 사회주의 체계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구출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삼고, 그 실천 방안으로 자연발생적이 아닌 직업 혁명가의 전위조직에 의한 계획적 혁명 추진과 경제 투쟁에 그치지 않는 정권 획득에 의한 국가 단위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의 실현이 10월 혁명이었다.  
(2:153-154)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과 식민지라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바꾸어놓은 전쟁인 동시에 ‘유럽의 몰락’을 가져온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강국 미국이 대두하고, 후진국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3·1운동 이후 비로소 ‘나-사회-국가-세계’로 이어지는 인류적 단일성을 발견하고 세계적 의제를 동시대적으로 고민하는 주체가 탄생하였다. 식민지의 청년들은 민족의 생존과 부강을 고민하였고, 세계적 존재와 인류의 실존을 개척하였다.<sup>48)</sup>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군청 농업 조수로 한두 해 근무하면서 ‘식민지 중견인물’의 길을 걷던 박성운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삶을 개척한 계기 역시 3·1운동이었다.<sup>49)</sup> 최인훈은 “통나무 배 대신에 무쇠배를 타게 되었다고 해서 <문

48) 권보드래(2019), 『3월 1일의 밤』, 돌베개, p. 239, p. 249; 권보드래(2009), 「진화론의 경쟁, 인류의 탄생 —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p. 249.

49) 최초 발표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자 처리가 된다. “그리다가, 마침 ○○○이 ○○하였다. 그는 단연히 결심하고 다니던 것을 헌신짝 같이 집어던지고는, ○○○에 ○○하였다. 일마당에 나서고 보니는 그는 열렬한 투사였다. 그때쯤은 누구나 예사이지만은 그도 또한 일년 반동안이나 철창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명희

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문명>이란 “어디까지가 형제인가, 어느 인종까지가 형제인가, 어느 지역까지가 형제인가, 혹시 인류 전체가 형제가 아닐까(!), 지구 전체가 한지붕 밑이 아닐까 하는데 까지 인간의 의식을 북아대게 되고, - 바로 그렇다, 인류가 한 형제, 라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천 가능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비친” 나라가, 식민지 시기의 “소련”이었다고 강조하였다(2:262). 그리고 그는 조명희의 소련행 역시 “인류”라는 이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겹겹의 공동체의 교차점에서 사는 문명 시기의 개인의 인격에는 전일하게 복속을 요구하는 귀속공동체는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인류>라는 단위만이 그런 충성을 욕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는 <이성>만이 그런 보편적 기준이다. 나의 이성은 <박성운>이나 포석과 마찬가지로 터였다. (2:269)

소련이라는 체제를 인류라는 이념과 연동하여 파악한 것은 1946년 이태준의 소련기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비에트는 비단, 경제나 문화뿐이 아니라 인류 자체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킨 것이다. 마치 중세기의 르네상스가 봉건체제 속에 말살되었던 인류의 ‘자아’를 위한 각성이었듯이, 소비에트는, 인류가 다시 자본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와 노예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절대 평등에 의한 진정한 평화향, 계급 없는 전체적 사회의 성원으로서 ‘새 타입의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영원히 축복 받을 인류의 위대한 재탄생인 것이다!<sup>50)</sup>

(1946), p. 17. 임화는 “발행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 인하여 복자를 찢은 것을 소생시키려 하였으나 역시 함부로 손을 대일 바가 아니어서 그대로 인행하고, 형이 도라올 날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모든 양해를 빈다.”라고 썼다. 임화 (1946), p. 108.

이태준은 소련이라는 실험을 ‘인류’ 혹은 ‘평등’의 이념에 근거한 평화향(鄕)에 대한 지향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소련의 지향을 사회적 평화로 제시하면서, 그 사회를 “요순” 시대라는 동아시아의 이상향으로 번역하였다. 다만, 이것은 최인훈이 해방 후 이태준의 소설을 경계했듯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후식민지 주체 최인훈은 인류라는 계기를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주변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최인훈은 모스크바의 톨스토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두 개의 러시아 혁명, 곧 1905년 혁명과 1917년 혁명 사이에 세상을 떠난 톨스토이로부터 인류라는 보편성과 노예의 눈물이라는 주변성을 함께 읽어낸다.

톨스토이는 누구보다 러시아적인 것을 사랑한 작가였지만, 우리들 식민지 생활을 겪은 나라의 예술가들에게는 다른 대국이나 식민지 소유 경력이 있는 나라의 작가들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 (...) 오늘날 그의 조국의 운명이 결국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가 살았던 동안의 그의 조국도 텅치만 대국이었지 내수용(內需用) 인권의 분배도 넉넉지 못한 허약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선 전체의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그의 마음은 허락할 수 없었다. 서양 작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진화된 인간성 속에 — 그 깊이와 섬세함과 과학성과 상상력 속에 — 노예들의 눈물이 있는 것을 의식하는 흔적이 없는데, 톨스토이에게는 그것이 있다. 그가 그의 <예술론>에서 나타내는 서방 예술에 대한 혐오는 형식논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나친 것이지만, 역사와 사회라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 놓고 보면, 그것은 서방 예술의 염치 없음과 경박성, 인류라는 전체에 대한 시야가 없는 이기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의미에서 정당하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변증법적으로는 정당하다, 고나 할까

50) 이태준(2015b), p. 183. 인용문 다음 단락의 “요순” 사회라는 표현은 같은 책, p. 182. 동아시아의 ‘전통’과 소련의 ‘현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문화적 콜라주를 구성하는 이태준의 미학적 실천에 관해서는 조영추(2019), pp. 164-168.

그런 입장이다. (2:401)

최인훈은 러시아의 후진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는 톨스토이의 문학으로부터 인류라는 보편성과 러시아의 주변성을 함께 읽어냈다. 그것이 현실의 변증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러시아 혁명 5년 후 신경제정책을 지지한 연설문의 필자 역시 소련 사회에 대하여 ‘인간의 연대성에 바탕을 둔 사회’라고 명명하는 동시에,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투쟁을 통한 주체 구성을 요청하였다.

우리 혁명은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은 다만 한 가지 형태의 착취를 다른 형태의 착취로 바꾼 데 지나지 않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인간의 연대성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바꾸어놓고 있는 중이다. (2:506)

당은 결코 무작정 위대한 우정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과의 심각한 투쟁을 거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부의 적과의 심각한 투쟁에 의하여 그 대열을 정비할 때만,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 없이 혁명의 대의에 심혼을 바치는 노동자 계급 속의 최량의 분자를 선택함으로써만 위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위대한 공동체가 되자면, 당은 위대한 선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510)

연설문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사회적 연대로의 변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변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향’, 곧 민중의 연대와 우정에 근거하여 ‘외부 세계의 타자를 비판하는 태도로부터 자신과 타자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이중·다중의 뒤엉킴 양상을 발견하는 방

향으로 태도의 전향'이 필요하다.<sup>51)</sup> 이 점에서 『화두』가 러시아혁명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한 ‘사회주의의 이념’은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최인훈이 발견한 사회주의의 이념형과 소련이라는 정치 체제의 낙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17년 8-9월 혁명 직전에 레닌은 『국가와 혁명』을 집필하였다.

우리는 공상가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장 어떤 행정과 복종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몽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정부주의적 몽상으로 마르크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달라질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현재 모습 그대로의 인간들, 즉 복종과 통제와 ‘감독과 부기 계원’ 없이는 일을 해나갈 수 없는 인간들과 함께 사회주의혁명을 하려고 한다.<sup>52)</sup>

박노자는 1917년 레닌이 『국가와 혁명』을 통해 상비군 폐지, 관료 기구의 혁파, 대의 민주주의의 극복을 주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철저”한 “민중적 민주주의 개혁”을 기도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1922~24년 소련은 국민 개인에게 생활 개선 및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체로서 민중을 관리, 통제, 억압하였고 결국 국가운영의 논리가 민중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압도하였다. 레닌은 국가 건설에는 성공하였지만 소비에트 민주주의 건설에는 실패하였고 “노동자 조직의 자율성, 독자성, 참여성의 이상”이라는 과제를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sup>53)</sup>

51) 첸리첸, 김영문 역(2012), 『내 정신의 자서전 — 나에게 묻는다,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p. 49.

52) 블라디미르 레닌, 문성원 외역(2015), 『국가와 혁명』, 돌베개, p. 90.

53) 박노자(2008), 「레닌, 반(反)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의 흥망」, 박노자 외, 『레

레닌의 실패와는 별개로, 그의 시대를 살아갔던 주변부의 민중들은 소련의 실패와 연동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에 근거하여 주체를 구성하고 실천을 수행하였다. 가지무라 히데키가 강조했던 바, “외부의 문명을 따라 잡으려하는 것도 아니며, 독립문명으로 향한다는 몽상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주변’에 몸을 두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곳에서 자세를 가다듬는 태도”에 근거한 주체구성과 실천이다.<sup>54)</sup> 이를테면 박노자의 스승 역사학자 미하일 박은 “늘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전제하는 — 민중의 계급적 저항에 일차적인 포커스를 맞”춘 역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sup>55)</sup> 다시 1946년 레닌묘 앞에 선 이태준.

끝으로는 선생의 ‘데드마스크’의 봉안실이 있었다. 선생의 기세(棄世)를 슬퍼하는 세계 모든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의 조문들과 당시 신문호외들까지도 진열된 수천 점 속에서 나는, 순 한문의 “애호 아 열령선생 하시 재현어차세호(哀呼 我列寧先生 何時 再現於此世乎)”로 끝을 맺은 ‘1924년 3월 27일 대한민국 농민 연병호(延秉昊) 읍고(泣叩)’의 인찰지에 쓴 글월을 발견하였다.<sup>56)</sup>

실패와 함께 존재하였던 레닌의 이상.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각 나라, 단체, 개인의 호외와 조문. 그 사이의 순한문 인찰지. 한문과 농민의 조합, 1924년의 시간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조합은 여러 모로 어색하다. 하지만 어색한 조합 자체가 레닌이라는 이상에 공명하였던 주변부 민중의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의 실상이었다. “주변부 세계에서의 혁명”을 현실화했던 “인민적 대중 정체성은 계급 정체성과 달

닌과 미래의 혁명』, 그린비, pp. 118-141.

54) 梶村秀樹(1993),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1985), 『梶村秀樹著作集 2 —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pp. 161-162.

55) 박노자(2013), p. 230.

56) 이태준(2015b), p. 169.

랐으며 그보다 포괄적”이라는 통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57)</sup> 이 점에서 『화두』에 쓰여 있으나 충분히 쓰여 있지 않았던 러시아 혁명의 시간은 인류라는 보편성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주변부 민중의 시간이었다.

## 6. 소련이라는 질문 — 슬픈 육체를 가진 짐승이 내는 별들의 토론 소리

시공간을 거슬러 최초의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발견한 이후, 최인훈은 “낙동강 칠백 리, 길이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곁가지 강물을 한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2:543)<sup>58)</sup>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화두』의 집필에 착수하였다.<sup>59)</sup> 다시 얼마 후 최인훈은 조명희의 문학을 모은 그의 전집에 서문을 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용과 형식에서 ‘문학’이 전제하고 있어야 할 어떤 본질이 식민 통치하에서 가능한 한계를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학이란 과연 무엇이고, 인간사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과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포석 조명희의 문학과 생애가, 특히 망명 후의 그의 존재가 우리 문학사에 대해서 지니는 최대의 의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sup>60)</sup>

57)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외, 이승원 역(2012), p. 126.

58) 이 문장은 최인훈이 소장하였던 해방 이후 건설출판사 판본 『낙동강』의 첫 문장이다. 조명희(1946), p. 7.

59) 정의진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비교하면서 『화두』의 서사가 “텍스트의 끝이 곧 시작인 순환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정의진(2019), 「최인훈 문학관의 한국적 특수성 — 『화두』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6,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p. 58.

60) 최인훈(1995), 「문학사에 대한 질문이 된 생애」, 조명희,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출판국, 면수 없음.

현실이라는 조건에 유의하면서도 역사의 발전과 민중의 삶을 신뢰하며 인간의 이상을 지향한 문학. 혹은 ‘현실에 걸맞은 명문’. 최인훈은 조명희의 문학이 제기하는 문학사적 질문이 그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그 질문의 이면에는 ‘명문에 걸맞은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역시 존재했다.

식민지와 냉전은 최인훈 문학 전체를 통괄하는 화두였다. 탈냉전기에 발표된 소설 『화두』(1994)는 한반도의 학문/지식이 소련과 교섭하기를 멈춘 상황에 발표된 후일담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뒤늦게 소련 기행에 나선 최인훈이 선배 문학자 조명희와 이태준의 소련 체험을 검토하면서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의 열망을 뒷받침한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마주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두 가지 방식의 독해를 시도하였다.

첫째, 이 글은 문학사의 맥락을 존중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소련 체제의 붕괴와 조명희의 비극적 최후를 접하면서 최인훈은 “「낙동강」 혹은 『자본론』이라는 ‘명문에 걸맞은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최인훈의 소련행은 ‘명문에 걸맞은 현실’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행이었다. 그 탐색의 절정에서 그는 조명희와 관련된 한 연설문을 만난다. 그 연설문은 현실이라는 조건에 유의하면서도 역사의 발전과 민중의 삶을 신뢰하며 사회주의 이상향을 지향한 것이었다. ‘명문에 걸맞은 현실’을 찾아서 소련기행에 나섰던 최인훈은 ‘현실에 걸맞은 명문’을 발견하였다.

둘째, 이 글은 문학사적인 맥락을 거스르는 독해를 시도하였다. 최인훈은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태준의 「해방전후」를 다시 읽으면서, 인간의 꿈과 행동, 역사와 현실, 민중의 삶이 갖는 의미를 다시 검토하였다. 최인훈은 조명희와 이태준의 문장을 다시 읽는 방식으로, 비서구 한국문학의 문장으로 레닌의 문장을 탈구축하였다. 그리고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통해서 최인훈의 『화두』의 공백을 채우면서, 최인훈

의 소련기행의 침묵을 보충하였다. 최인훈은 소련에서 러시아 청년이 발화하는 낯선 한국어를 만나는데, 그것은 20세기 소련에서 살았던 조선인의 삶과 문화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최인훈은 『화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혁명의 시간으로 도약한다. 그 시간은 인류라는 보편성의 시간이면서, 식민지 민중의 주변부의 시간이었다. 최인훈은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 인류의 이상으로서 사회주의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였다.

냉전의 종식이 이야기될 무렵, 최인훈은 20세기의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소련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탈식민화와 사회적 연대를 뒷받침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구출하여 인류의 이상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고자 하였다. 이 글은 최인훈이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한 사회주의라는 이념, 혹은 소련이라는 질문을 두고 “슬픈 육체를 가진 짐승이 내는 별들의 토론소리”(2:510)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 최인훈(1995), 「문학사에 대한 질문이 된 생애」, 조명희,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출판국.
- \_\_\_\_\_ (1994), 『화두』 2, 민음사.
- \_\_\_\_\_ (1971), 「갈대의 사계」 2, 『월간중앙』, 1971.9.
- \_\_\_\_\_ (1960), 「광장」, 『새벽』, 1960.11.
- 이태준(2015a), 『무서록』(박문서관, 1942), 『이태준 전집 5』, 소명출판.
- \_\_\_\_\_ (2015b), 『쏘런기행』(조소문화협회·조선문학가동맹, 1947), 『이태준 전집 6』, 소명출판.
- \_\_\_\_\_ (2005), 「재의 혁명동지 환영문」, 『문장강화』(박문출판사, 1947), 창비.
- 임화(1946), 「중간사」, 조명희, 『낙동강』, 건설출판사.
- \_\_\_\_\_ (1940), 「위대한 낭만적 정신 — 이로써 자기를 관찰하라!」, 『문학의 논리』, 학예사.
- \_\_\_\_\_ (1935), 「‘거울’로서의 톨스토이」, 『조광』, 1935.1.
- 조명희(1946), 『낙동강』, 건설출판사.

### 【논 저】

- 구재진(2015), 「최인훈의 『화두』에 나타난 애도와 기억」,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 권보드래(2019), 『3월 1일의 밤』, 돌베개.
- \_\_\_\_\_ (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김민수(2018), 「해방기 문학의 ‘전후’ 담론과 그 표상 — 전후문학 개념의 재고를 위한 하나의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54, 한국현대문학학회.
- 김윤식(1996a), 「역사의 종언과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3(2), 문학동네.
- \_\_\_\_\_ (1996b), 「최인훈론 — 유죄판결과 결백증명의 내력」, 『작가와의 대화』, 문학동네.

- 박노자(2013), 「계봉우와 미하일 촌의 한국학 — 근현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학연구』 2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_\_\_\_\_ (2008), 「레닌, 반(反)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의 흥망」, 박노자 외, 『레닌과 미래의 혁명』, 그린비.
- \_\_\_\_\_ (2002), 「러시아 한국학의 개척자 — 미하일 박 교수」, 『한국학』 25(3),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영채(2019), 「김윤식과 글쓰기의 윤리 — ‘실패한 헤겔주의자’의 몸」,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 손유경(2017),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 민족문학사학회.
- \_\_\_\_\_ (2008), 「입화의 유물론적 사유에 나타나는 주체의 위치(position)」,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 임미진(2018), 「『화두』에 나타난 식민지 문학인의 연대와 역사의식 — 조명희와 이태준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 임유경(2016),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 장문석(2018), 「월북작가의 해금과 작품집 출판(1) — 1985-1989년 시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9, 구보학회.
- \_\_\_\_\_ (2017), 「통일을 기다리는 날들 —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_\_\_\_\_ (2014),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기」, 『사이間SAI』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정의진(2019), 「최인훈 문학관의 한국적 특수성 — 『화두』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6,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 정종현(2018),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 조영추(2019), 「정치적 유토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
- 조호연(2001),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인문논총』 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천정환(2008),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 초기 형평운동과 「낙동강」에 나타난 근대 주체」,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홍종욱(2020),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_\_\_\_\_(2019),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3 — 권력과 정치』, 휴머니스트.

황호덕(2015), 「김윤식 비평과 문학사론, 총체성과 가치중립성 사이 — 신비평에서 루카치로의 행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첸리첸, 김영문 역(2012), 『내 정신의 자서전 — 나에게 묻는다,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로버트 서비스, 김남섭 역(2017), 『레닌』, 교양인.

로자 룩셈부르크, 박영옥 역(1989), 『러시아 혁명·레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냐』, 두레.

루츠 니트hammer, 이동기 역(2001),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 박종철출판사.

발터 벤야민, 김남시 역(2015), 『모스크바 일기』, 길.

블라디미르 레닌, 문성원 외역(2015), 『국가와 혁명』, 돌베개

\_\_\_\_\_, 이길주 역(1991), 「러시아 혁명의 거울인 레프 톨스도이」, 『레닌의 문학예술론』, 논장.

에드먼드 윌슨, 유강은 역(2007), 『핀란드 역으로 — 역사를 쓴 사람들, 역사를 실천한 사람들에 관한 탐구』, 이매진.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외, 이승원 역(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케빈 맥더모트 외, 황동하 역(2009), 『코민테른』, 서해문집.

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2014),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梶村秀樹(1993),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1985), 『梶村秀樹著作集 2 -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カル・マルクス, 城塚登 他 訳(1964), 『経済学・哲学草稿』, 岩波書店.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 野村脩 訳(2000), 「歴史哲学テーゼ」, 今村仁司, 『ベンヤミン 「歴史哲学テーゼ」精読』, 岩波書店, 2000.

ヴィクトル・シクロフスキイ 他, 桑野隆 訳(2005), 『レーニンの言語』, 水声社.

166 인문논총 제77권 제3호 (2020.08.31.)

강성만(2018.9.16.), 「“한국 존립하려면 힘들더라도 이민사회 본격 준비해야”  
—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사학자 박노자 교수」, 『한겨레』, 2018.9.16.

원고 접수일: 2020년 8월 18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25일

ABSTRACT

---

Sound of Discussion among the Stars Created by the  
Animals with the Sad Bodies:

Choi In-Hoon's "Topic" and the Question of the Soviet Union

Jang, Moon-seok\*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were the two pillars of Choi In-hoon's literature. The novel "Topic" (1994) released in the post-Cold War period, was the reminiscence which was published at the time when the scholarship/knowledge of the Korean Peninsula stopped negotiating with the Soviet Union.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situation that Choi reviewed his senior writers Cho Myung-hee and Yi Tae-joon's experience in the Soviet Union and faced the ideology of socialism that supported the aspirations for decolonization and social solidarity. This article performed the two ways of reading.

First, this article performed the reading respected the context of the Korean literary history. Facing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regime and the tragic end of Cho Myung-hee, Choi In-hoon posed the following question; 'Isn't there 'the reality aligned with the great writing' such as "Nakdong River" or "Capital"'? Choi's trip to the Soviet Union was the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trip to explore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reality aligned with the great writing’. At the height of the quest, he encountered the speech related to Cho Myung-hee. The speech aimed at the socialist ideals and trusted the development of history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ile paying heed to the conditions of reality. Choi, who was on a trip to the Soviet Union in search of ‘the reality aligned with the great writing’, discovered ‘the great writing aligned with the reality’.

Second, this article attempted to read the texts against the context of Korean literary history. While re-reading Cho’s “Nakdong River” and Yi’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Choi revisited the meaning of the dreams and actions of human, history and reality, and people’s lives. Choi deconstructed Lenin’s sentences through the sentences of non-Western Korean literature. And this article complemented the gap in meaning of Choi’s trip to the Soviet Union through Yi’s trip to the Soviet Union. Choi met unfamiliar Korean language of a Russian youth in the Soviet Union. The cultural foundation of the Korean language he met was the life and culture of Koreans who lived in the Soviet Union in the 20th century. Choi also leaps into a time of revolution after World War I in “Topic”. It was the time of universality of mankind, and the time of the periphery of the colonial people. Choi In-hoon discovered the meaning of socialism as a human ideal based on decolonization and equality.

By the time the end of the Cold War was told, Choi In-hoon travel back into the world history of the 20th century. He sought to rescue the ideology of socialism, which supported decolonization and social solidarity, from the historical failure of the Soviet Union to return to its original position: the ideal of humankind. This article named Choi In-hoon’s first socialist ideology that he discovered by traveling back in time and space,

or the question of the Soviet Union, as ‘Sound of Discussion among the Stars created by the Animals with Sad Bodies.’

